

1995년 한국에서 설립되어 국내 및 국제구호개발기구(NGO)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립의 열매, 희망의 완성을 향하여

지속 가능한 변화의 30년

2025 한국재난구호
연 차 보 고 서
KOREA DISASTER RELIEF



KOREA DISASTER RELIEF
한국재난구호

구호의 손길을 넘어, 스스로 일어서는 자립의 역사를 씁니다.



1995년,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해 첫걸음을 뗀 한국재난구호가 어느덧 창립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재난의 현장에서 우리가 쉼 없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현장을 향한 우리의 진정성을 믿어주시고,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주신 후원자 여러분의 사랑 덕분이었습니다. 2024년이 우리가 '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는 자립의 씨앗을 심는 해였다면, 2025년은 그 씨앗이 각국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의 열매로 맺히는 것을 목도한 감격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재난의 잔해 속에서 뼈아픈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구호는 단순히 배고픔을 일시적으로 달래주는 빵 한 조각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 지원은 단기적인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그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는 못합니다. 진정한 변화는 절망에 빠진 이웃이 '나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자조(Self-help)의 의지'를 깨워줄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과거 폐허 속에서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통해 빈곤을 극복하고 눈부신 성장을 이뤄냈듯, 우리 한국재난구호도 그 성공의 DNA를 전 세계 재난 현장에 이식하며 새로운 희망의 길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재난구호는 단순한 긴급구호 NGO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가 스스로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자립 생태계'의 설계자가 되고자 합니다. 재난 이후의 복구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도약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해외 지부와 훈련센터를 통해 현지 지도자를 양성하고, 그들이 다시 마을을 변화시키는 선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2025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깁니다. 모든 사역의 중심에 인간 존엄성을 두고, 소외된 곳에서 신음하는 단 한 사람의 생명도 포기하지 않는 현장의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후원자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희망을 전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동역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멈추지 않고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한국재난구호 이사장 조성래



긴급재난구호 Emergency Disaster Relief



01 재난예방과 대비

한국재난구호(인도적 지원)는 재난이 발생하기 전부터 예방 및 대비 단계를 포함하여 이루어집니다. 한국재난구호는 사전에 배치된 긴급 구호 물자 및 상시 비상 자금을 활용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재난 상황을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난에 취약한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재난 경감 사업을 수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02 한국재난구호

한국재난구호는 전 세계 어디에서든 재난이 발생하면 72시간 이내에 긴급재난구호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피해 주민들의 생명을 구하고 고통을 경감합니다. 긴급재난구호 단계에서는 먼저 현장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주민들의 필요 사항을 파악한 후, 생존에 필수적인 구호 물품을 제공합니다. 또한, 피해 지역에 구호 식량, 생필품,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긴급 대피소 및 난민촌을 운영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들이 재난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심리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복구 및 재건

긴급재난구호 단계를 거쳐 긴급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복구 및 재건 사업을 진행합니다. 한국재난구호는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사회기반 시설을 복구하고, 생존 능력을 잃은 주민들이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가 삶의 터전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복구 및 재건 사업에는 식수 및 위생 개선, 보건 및 영양 지원, 교육 지원, 아동 보호, 소득 증대, 농업 지원, 도로 및 주택 재건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피해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긴급재난구호에 대한 인식이 없던 1995년,

전쟁과 굶주림으로 고통받는 이웃을 돕기 위해 한국재난구호는 긴급재난구호 파견단을 결성하였습니다.

한국재난구호는 자연재해와 전쟁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구호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구호 활동을 펼칩니다. 또한, 긴급 구호 이후에는 국제구호개발사업으로 연계되는 장기 재건 전략을 수립하여, 대상국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절망의 수마(水魔)를 넘어 생명의 빛으로: 2025 스리랑카 (사이클론 '디트와') 긴급구호

재난 현장의 공기는 차갑고 무겁습니다. 2025년, 스리랑카 동부와 북부 지역을 강타한 기록적인 폭우는 수만 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습니다. 거대한 흙탕물이 마을을 삼키고 도로를 끊어놓은 절망의 현장에서, 한국재난구호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판단을 바탕으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생존'이라는 가장 처절한 외침이었으며, 한국재난구호의 긴급구호팀은 단순한 물자 전달자를 넘어 혼돈 속에 질서를 부여하는 '현장 조정자(Field Coordinator)'로서 사명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현장 도착 즉시 다각적 피해 평가(Rapid Needs Assessment)를 수행하였고, 국제 인도주의의 표준(Sphere Standards)에 입각하여 식수, 보전, 임시 거처를 체계적으로 배분했습니다. 특히 바티칼로아(Batticaloa)와 암파라(Ampara) 지역의 고립된 마을을 찾아가 생필품과 위생 키트를 전달하며 인류애를 실천했습니다. 2025년에는 고도화된 물류 시스템을 통해 구호 물자의 현장 도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으며, 단순 배급을 넘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겪는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적 응급처치(PFA)'를 강화했습니다. 현장의 비명 소리가 일상의 평온함으로 복구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가장 위험한 곳에 희망의 손길이 되어 가장 먼저 도착할 것입니다.



한국재난구호의 긴급재난구호(인도적 지원)

한국재난구호는 자연재해와 전쟁·내전 등 다양한 재난에 대응하며, 재난 예방 및 대비, 긴급 재난 구호, 복구 및 재건의 세 단계로 구호 활동을 진행합니다.

재난 발생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예방 및 대비 단계, 피해 지역에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는 긴급 구호 단계, 그리고 자립과 회복을 돕는 복구 및 재건 단계를 통해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이 다시 삶을 일굴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긴급재난구호 중앙대책본부

피해지역 및 긴급재난구호 상황보고
홍보 · 모금 · 후원자 응대 및 국내 행정지원

긴급재난구호 해외대책본부

한국재난구호 국제연대 및 유관기관과 협력
현지 긴급재난구호 진행

긴급재난구호 총괄본부

문의. 1666-1995





국제구호개발 International Relief & Development

전략적이고 입체적인 글로벌 구호 개발의 확장

2025년, 한국재난구호는 기후 위기의 최전선인 파키스탄, 지역사회 자생력 강화가 시급한 스리랑카, 그리고 긴급 구호 체계 고도화가 필요한 대한민국 국내를 전략적 핵심 지역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의 단계를 넘어, 지역사회가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구축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의 문화적, 지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모두가 존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미래를 설계합니다.

지역 리더 양성 및 빈민 구제 사역 (Empowerment & Relief)

스리랑카 지역사회의 근본적인 자립을 위해 '커뮤니티 리더십 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현지 지도자들을 발굴하고 전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그들이 직접 마을의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자생적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와 병행하여 경제적 위기로 생존을 위협받는 극빈층을 대상으로 식량 및 생필품을 지원하는 긴급 구호 사역을 전개하여 실질적인 삶의 질 개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기후 대응 및 스마트 수자원 개발 (Climate & Water Action)

반복되는 홍수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파키스탄 전역에 '태양광 기반

스마트 식수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기후 변화에 강한 인프라를 구축하여 수인성 질병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통해 식량 안보를 강화합니다. 이는 기후 난민 발생을 방지하고 마을의 지속 가능한 생존권을 보장하는 핵심 사역입니다.

긴급 구호 및 복지 사역 (Emergency Relief & Welfare)

국내에서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가정을 돕기 위해 긴급 구호 체계를 상시 가동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며,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피해 복구와 심리 회복 지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전망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연대와 평화 구축 (Peace & Solidarity)

대한민국, 스리랑카, 파키스탄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국가 간 경계를 넘는 인도적 연대를 실천합니다.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상호 교류와 평화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갈등과 상처를 보듬으며, 서로 이해하고 화합하는 지구촌 공동체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내일을 향한 우리의 약속,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함께 걸겠습니다."





국내 사업 Domestic Social Welfare

사회복지 및 자립 지원

도시 빈민 및 취약 계층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낙후 지역의 복지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민 맞춤형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시적인 원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통합 건강 돌봄

열악한 주거 환경과 불규칙한 식생활로 건강권의 위협을 받는 소외계층을 보호합니다. 정기적인 보건 위생 교육, 균형 잡힌 급식 제공, 의료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통해 신체적 회복을 돕고 건강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아동 결연 및 성장 지원

저소득·결손 가정 아동과 후원자를 1:1로 매칭하여 경제적·정서적 안정망을 구축합니다. 장학금 지원뿐만 아니라 계절별 캠프,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이 정서적 결핍 없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습니다.

세계시민 교육

미래 세대가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공감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리더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연계하여 존중·공감·협력의 가치를 실천하며, 세계를 품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양성합니다.

사랑의 온기 나눔 : 무료급식 나눔 캠페인

경제적 결핍과 사회적 소외를 겪는 이웃들에게 정기적인 식사를 제공하며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사회 공헌 활동입니다. 단순한 급식을 넘어 사회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 사업 성과 및 기대효과

- 균형 잡힌 영양 지원 : 소외계층의 기초 생존권을 보장하고 정서적 지지 체계로서 기능함
- 긴급 대응 역량 강화 : 재난 상황 시 즉각 가동되는 급식 시스템으로 이재민 결식 위기 해소
- 사회적 안전망 구축 :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역 공동체 돌봄 문화 정착 기여

■ 사업 상세 안내

- 제목 : 2025 무료급식 나눔 캠페인
- 장소 : 의정부 가능역 등 주요 거점 및 사회복지시설
- 대상 : 독거노인, 노숙인, 장애인, 결식아동 및 재난 이재민
- 일시 : 2025년도 (매월 지정 금요일)
01.24 / 02.28 / 03.28 / 04.25 / 05.23 / 06.27
07.25 / 08.22 / 09.26 / 10.24 / 11.28 / 12.26





사랑의 집짓기 2.0 : 희망으로 세우는 자립의 터전 House of Love 2.0 : Building Hope

2025 프로젝트 비전 : "주거를 넘어 자립으로"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와 존엄성을 회복하고,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기후 탄력적 마을'을 조성합니다. 단순 구호를 넘어 재난 피해 이웃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자립의 발판을 제공합니다.

2025 핵심 사업 전략 (Innovation & Humanity)

- 기후 대응형 건축 : 고효율 단열 및 지면 이격 설계를 도입하고, 현지 친환경 압축 벽돌(CSEB)을 사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인 지속 가능한 주거 모델을 실현합니다.
- 에너지 및 수자원 자립 : 독립형 태양광(ESS)과 빗물 집수·정화 시스템을 결합하여 전력과 식수 문제를 해결하고 위생적인 생활 환경을 보장합니다.
- 순환형 경제 생태계 : 주거지 인근 공용 농장과 가축 사육을 지원하여 주민의 직접 생산을 유도하고, 마을 공동체의 경제적 자생력을 높입니다.

신규 건축 설계: "Hope House 2025"

거주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보건 위생을 최우선으로 하여, 심리적 안정과 평안을 주는 최적의 공간을 설계했습니다.

- 최적 설계 : 약 15평(50m²) 규모, 4~6인 가족용 다목적 공간.
- 맞통풍 구조 : 자연 환기 설계로 별도 냉방 없이 쾌적한 실내 온도 유지.
- 실내 통합 욕실 : 안전과 위생을 위해 내부 배치를 실현하고 정화조 시스템 강화.
- 확장형 포치 :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공동체 공간 활용.

기대 효과 및 가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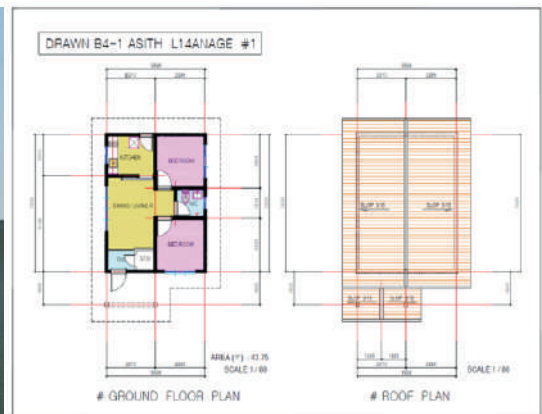
- 회복 : 안정적 주거를 통한 재난 트라우마 극복 및 삶의 의지 회복.
- 성장 : 야간 조명 확보로 아동 학습권 보장 및 보건 위생 개선을 통한 질병 예방.
- 나눔 : 집짓기 과정을 통해 지역 사회에 사랑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적으로 증거.

파트너십 안내 (Join Us)

- 주택 후원 : 1채당 \$12,000 (스마트 에너지 시스템 포함)
- 기술 기부 : 건축, 에너지, 보건 분야 전문가 자문 및 현장 봉사
- 네트워크 : 지속 가능한 개발(SDGs)을 위한 민간 협력 강화



- 건축 투시도 -



- 건축 평면도면 -



세계지도자훈련 프로젝트 (Saemaul Movement)

성장과 나눔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동행

사업 개요 및 비전

본 프로젝트는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2015년부터 지속되어 온 역량 강화 프로그램(Capacity Building)입니다. 한국형 새마을운동 모델을 현지 실정에 맞게 로컬라이징(Localizing)하여, 빈곤 국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마을 단위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 주요 성과 요약

- 글로벌 거버넌스 강화 : 2015년 이래 누적 훈련 횟수 총 54회 완수
- 하이브리드 교육 정착 : 현지 방문 교육과 디지털 플랫폼(ZOOM)을 결합한 에듀테크(Edu-Tech) 솔루션 고도화
- 통합적 커뮤니티 케어 : 교육과 병행하여 국가 비상사태 지역에 대한 긴급 재난 지원 활동 수행
- 정예 지도자 양성 : 양수리 훈련센터 국내 초청 연수를 통한 고도화된 집중 심화 교육(2개월 과정) 운영

2025년도 현지 방문 및 전략 교육 시행 일정

올 한 해 동안 스리랑카와 파키스탄 현지에서 총 6차례의 전략적 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 02. 10. ~ 02. 21. : 파키스탄 (지역사회 개발 전략 세미나) / 03. 10. ~ 03. 21. : 스리랑카 (현지 리더십 역량 강화 교육)
- 05. 12. ~ 05. 23. : 스리랑카 (지속가능발전 실무 워크숍) / 08. 11. ~ 08. 22. : 파키스탄 (현지 지도자 심화 트레이닝)
- 10. 13. ~ 10. 24. : 스리랑카 (마을 자립 경제 모델 구축 교육) / 12. 08. ~ 12. 19. : 스리랑카 (현지 방문 교육 및 성과 평가)

핵심 역량 및 차별점

- 현지 맞춤형 교육 : 단순 원조를 넘어 현지 지도자들이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조(Self-Help)' 정신 함양
- 유연한 대응력 : 물리적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으로 중단 없는 지식 공유 실현
- 네트워크 구축 : 한국 양수리 훈련센터와 현지 커뮤니티를 잇는 글로벌 리더십 네트워크 강화

2025년 한 해 동안 축적된 경험과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스리랑카와 파키스탄의 수많은 지도자가 긍정적인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에도 이러한 성과를 더욱 체계화하고 지원 지역을 전략적으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역사회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재정보고 Financial Report 2025

2025년 한 해 동안 아낌없는 사랑과 후원을 보내주신 개인 및 기업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국재난구호는 더욱 전문적이고 성실하며 투명한 행정을 통해, 전 세계 소외된 이웃들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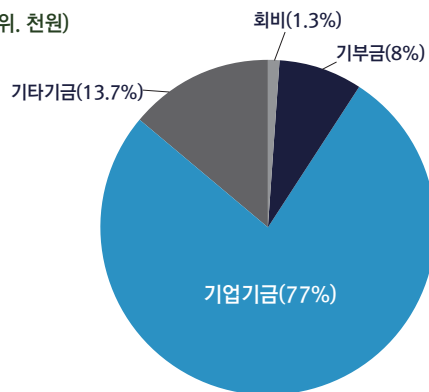
한국재난구호는 투명한 회계 및 조직 운영을 위해 전문성, 투명성, 지속 가능성, 그리고 성실한 사업 보고를 핵심 원칙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외부 공인 회계사(세무사) 감사를 수행
- 내부 감사 시스템을 운영하여 지속적인 검토 및 개선
- 기부금 모금 및 사용법에 따라 투명한 기부금 모금 및 사용 보고
- 외교통상부에 사업 실적을 성실히 보고

한국재난구호에서 수행한 국내외 사업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단위: 천원)

수입

구분	2025년 결산
회비(정·준회원)	7,621 (1.3%)
기부금 및 후원 물품	46,771 (8%)
기업기금	450,000 (77%)
기타기금	80,000 (13.7%)
총계	584,392 (100%)



지출

구분	2025년 결산
긴급재난구호(풍수재해)	450,000 (77%)
국제구호 및 교육, 새마을운동	25,240 (4.3%)
새마을운동(세계지도자훈련)	65,489 (11.2%)
사회복지사업	14,750 (2.5%)
운영비	28,913 (5%)
총계	584,392 (100%)

